



제주도립예술단 한자리... 짝 채운 무대 눈길

‘배비장전’ 재해석 한 ‘애랑이 넘실’ 선행
도내 5개 예술단 규모 줄여 한 무대 올라
객석까지 뺀 무대 연출 등 새로운 시도
첫 제주 소재 합동공연... 대표 작품 가능성

“혁신, 시도, 도전.” 지난 6월 말 열린 올해 네 번째 제주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애랑이 넘실’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부각된 단어다. 국악을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편곡했다는 음악에 대한 기대감부터 무용과 합창의 만남, 객석까지 이은 새로

운 형식의 무대공간 연출 시도 등에, 합동공연 처음으로 제주의 특색을 담았다는 창작 종합예술극 ‘애랑이 넘실’이 어떤 빛깔로 표현될지 궁금증을 더했다. ‘애랑이 넘실’은 권력층에 대한 풍자가 중심인 원작 ‘배비장전’을



지난 9일 제주문화재단 대극장 무대에서 처음 선보인 올해 네 번째 제주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애랑이 넘실’ 한 장면. 공연은 10일 한 차례 더 열렸다. 제주도 제공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주 여인 애랑의 모습에 주목하며 해원과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지난 9일 제주문화재단 대극장에서 처음 선보이며 베일을 벗은 ‘애랑이 넘실’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일부 규모를 줄였지만 제주도립 무용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등 도내 다섯 개 도립예술단이 한자리에 모여 짝 채운 무대는 대극장의 ‘작은 무대(270명 도립예술단이 함께 오르기에)’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풍성함을 더해 인상적이었다.

특히 무용단이 연기하는 객석까지 대각선으로 길게 뻗은 세로형 무대는 관객들이 보다 가까워서 배우와 호흡하며 친밀한 소통을 이끌어냈고, 한라산 풍경 등 홀로그램막을 활용한 프로젝션 매핑 연출은 시각적 볼거리를 더했다.

무용극이 중심인만큼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 서사는 ‘소로소’역을 맡은 지서현 배우가 화자 역할로 관객의 이해를

도왔고, 그의 재치있는 연기는 객석의 웃음을 자아내며 중간중간 극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일부 공연예술전문가들은 “제주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라고 했다. 1시간 40여분의 무대를 채우고 이끈 무용단의 연기에 호평을 내놓았는데, 일각에선 드라마적 요소를 충족시키는데 무용극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애랑의 사랑 감정이 요약된 듯한 극의 흐름과 일부 곡에서 국악의 정서를 보다 부각시켰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제주색을 보다 드러낼 수 있는 합창의 묘미 등을 보완하면 제주도립예술단의 대표 ‘페퍼토리’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도내 예술단들이 각자의 일정 속 시간을 내 어렵게 마련하는 합동공연인 만큼 탄생된 작품이 일회성 공연으로 그치지 않고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에 대한 행정의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김영중 작 ‘범섬의 해녀들’

작가의 시선에 담긴 제주의 내면

오백장군갤러리 기획공모전
김영중 “섬” 시선을 사로잡다

작가의 즉흥적인 언어로 형상화된 제주 내면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제주의 상징인 물속과 돌 그리고 제주의 소리를 다룬 김영중 작가의 판화, 회화 작품 97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12일부터 오백장군갤러리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의 올해 두 번째 기획전으로 선정된 ‘섬’ 전시를 사로잡다 전이다. 앞서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작가의 균등한 전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월부터 기획전시를 공모하고 전시작가로 김영중 작가를 선정한 바 있다. 김영중 작가는 1978년 제주지역 최초의 청년작가 동인인 돌맹이회

(훗날 시사작가회) 창립 멤버로 다양한 기법의 미적탐구를 시도해왔다. 영남지역(경주) 미술계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바 있으며 귀향한 이후 도의 미술계와 교류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물속, 그 생명의 소리’에서는 해녀를 소재로 하는 목판화, ‘울림, 제주 속으로’에서는 제주의 소리를 다룬 모노 추상회화, ‘돌, 환상여행’에서는 돌을 다룬 판화 및 드로잉을 각각 선보인다.

돌문화공원관리소 강태환 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표현을 확장해나가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한편, 일상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치유와 위안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기간은 9월 4일까지다. 오은지기자

즉흥 춤, 서귀포 바다와 만나다

제7회 제주국제즉흥춤축제
22~23일... 수중 퍼포먼스도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대표 장광열)의 생태즉흥을 내세운 ‘제7회 제주국제즉흥춤축제’ 2차 공연이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서귀포시 지역에서 열린다.

올해 제주국제즉흥춤축제는 예년과 달리 5월과 7월 두 번에 나눠 개최되고 있다. 지난 5월 1차 공연에서는 네덜란드와 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국제 협업 즉흥공연을 포함한 함덕해수욕장에서 열린 ‘굿모닝 즉흥’ 등 제주돌문화공원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2차 공연은 ‘즉흥춤이 서귀포 바다와 만나면’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는 22일 오후 3시 하례리 망장포구에서 펼쳐지는 즉흥 공연은 스페인의 무용가와 일본의 연주가들 비롯 독일, 제주, 서울에서 활동하는 6개 그룹의 즉흥 아티스트와 단체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즉흥 공연을 선보인다. 이어 바닷속이 관객이 되는 수중 공연도 예정돼 있다. 수중 즉흥 춤 공연은 안전을 고려해 관객들은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한 30명 정도의 스노클링 유경험자로 제한된다. 공연 실황은 수중 촬영돼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23일에는 서귀포관광공장에서 한국, 스페인, 일본, 독일 등 4개국에서 활동하는 10명의 즉흥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국제 협업즉흥 공연이 열린다. 이와함께 22일과 23일 위미리에 위치한 플라주 플라츠에서 즉흥 워크숍도 진행된다. 오은지기자

온 가족 함께 7월 ‘문화가 있는 날’

26일 박재홍 서귀포 리사이틀
30일 ‘...동화이야기 신데렐라’

무더운 7월의 마지막을 온 가족이 함께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이달 30일 오후 3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신데렐라’를 선보인다. 샌드 아티스트의 영상과 음악이 재미를 더해주는 무대로, 실감나는 동화구연과 피아노 듀엣 연주로 구성됐다.

공연은 무료며, 12일 오전 9시부터 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7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통통 튀는 아트데이 in

서귀포 네 번째 시리즈 공연으로 피아니스트 박재홍(사진) 리사이틀을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박재홍은 2021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부조니 작품 최고 해석상과 실내악 특별상을 포함한 4개의 특별상과 함께 우승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쌓고 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박재홍이 특별히 아끼는 작품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일반 관람권 예매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E-티켓에서 선착순으로 예매 가능하다. 전석 5000원. 오은지기자



원로배우 최종원과 함께하는
연극 ‘마술가게’ 무료 공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이 기획공연 연극 ‘마술가게’를 무대에 올린다. 연극계 원로배우인 최종원과 제주의 연극인들이 함께 출연해 호흡을 맞추는 이 공연은 오는 22일(오후 7시)과 23일(오후 3시) 두 차례 제주문화재단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상범 작가의 희곡 ‘마술가게’를 새롭게 연출한 이 작품은 고급의상실 ‘마술가게’에 우연히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3명의 도둑이 펼치는 좌충우돌 소동을 그린다. 도둑이라는 직업을 통해 시민이 겪

는 삶의 애환과 사회의 구조적 그늘을 은유하고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 늙은 도둑 역에 최종원이, 젊은 도둑과 중년 도둑 역에는 배우 이준과 이광호가 출연을 펼친다. 마케팅 역에는 제주에서 역량을 닦아온 4명의 젊은 배우들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작품의 풍성함을 더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물리적 환경에 풍경을 투영하는 융·복합 공연으로 구성해 관객들이 색다른 장르의 공연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며,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지킴이
귀하는 자조자립협회의 활동조항
정신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수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및 경제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제라콘 박영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세화카페 **우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링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냉동창고 콘크리트폴리싱 **영상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통운 물류센터**